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JUNE 2025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58

제1회 뉴욕관악클럽 모이



지난 5월 8일 저녁 6시 30분,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가연 식당 별실은 오랜만에 만난 관악 캠퍼스 동문들의 웃음과 이야기꽃으로 활짝 피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뉴욕동창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제1회 뉴욕관악클럽 모임에 무려 20명의 젊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날 모임은 동창회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한 동문이 12명이나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뉴욕 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의미 있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준 동창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형성된 끈끈한 네트워크와 교류가 앞으로 동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Shared했습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정해민 상임고문은 뉴욕관악클럽의 성공적인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이 모임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니어 모임인 골든클럽과 더불어 동창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뉴욕동창회는 그동안 73학번 이전 선배님들을 중심으

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나, 아쉽게도 관악 캠퍼스 출신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다음 세대로의 발전적인 이관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창회 수석부회장인 82학번 김병순 동문을 비롯한 80년대 학번들이 동창회의 주축으로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관악클럽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동창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뉴욕관악클럽 모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따뜻한 후원을 보내주신 송학린(법대59) 동문과 권정덕(의대58) 동문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후배들의 활발한 교류와 성장을 응원하며 흔쾌히 후원을 결정해주신 뉴욕골든클럽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소중한 격려와 지원 덕분에 젊은 후배 동문들이 더욱 힘을 내어 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회 뉴욕관악클럽 모임은 젊은 동문들의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뉴욕관악클럽이 더욱 발전하여 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골든클럽 Family Picnic이 알파인 파빌리온에서 개최됩니다! 골프나 하이킹에 참여가 어려우셨던 회원님들도 이번 피크닉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Alpine Pavillion은 날씨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피크닉에는 회원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문들까지 초대해서 함께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푸짐한 음식과 다채로운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시: 2025년 6월 12일 (목) 오전 11시
- 📍 장소: Alpine Pavillion (Alpine Approach Rd, Alpine, NJ)
- 💰 회비: 무료
- ☎ 등록 김병순 사무총장 (703-407-4928)

5월 동창회 골프대회는 아쉽게도 우천으로 취소되었습니다. 6월 골프대회는 뉴욕의 명문 Walkkill Golf로 계획하고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코스는 길이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홀들과 장애물들로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곳이고, 이어서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만찬도 아주 훌륭하여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주위의 친구분들도 초청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 🕒 일시: 2025년 6월 26일 (목) 낮 11시 (Shotgun Start)
- 📍 장소: Walkkill Golf Club 40 Sands Rd, Middletown, NY
- 💰 회비: \$120
- ☎ 등록: 김병순 사무총장 (703-407-4928)

Longwood Gardens 여행 계획 (7월 31일)

- 🕒 일시: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오전 8시 - 오후 6시 30분 (아래 세부 일정 참조)
- 💰 참가비: \$50 (교통편 - 49인승 버스대절, 입장료, 점심 및 간식 제공)
- ☎ 등록: 이영범 (973-464-9595)

일정
 오전 8시 플러싱 한양마트 출발
 오전 8시 50분; 포트리 한남체인 출발
 11시 20분 Longwood Gardens 도착; (약120 miles, 운전시간 2시간 30분)
 11시 30분 -12시; Guide Tour by Longwood Gardens (Conservatory Tour 예상)
 A summer highlight with giant waterlilies in full bloom
 오후 12시 - 1시 폭포와 산책로가 있는 Hillside Garden에 있는 Picnic Area 에서 Carillon 소리를 들으며 점심을 드시며 원하시는 분들은 20미터 높이의 Chimes Tower에 올라가 공원을 내려다 보



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1시-1시 45분 - Fountain Performances 관람 & Topiary Garden, 주위의 Topiary Garden, featuring whimsical, sculpted evergreen trees 둘러 보고.
 1시 45분 - 2시 30분 - Italian Water Garden & Flower Garden Walk ,Peirce's Woods Walk
 2시45분 Longwood Gardens 출발
 5시 15분 한남 체인 도착
 6시 30분 플러싱 한양마트 도착



Memorial Day (5월 26일)에 곽선섭, 이대영, 홍중만 회원은 이준행 회장님을 찾아뵙고 환담을 나누며 건강회복을 기원하였습니다.

김영덕 박사 사모님 요양치료중

김영덕 박사(공대53) 사모님께서 5월초에 낙상과 이은 스트로크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으시다가 많이 회복하여 인근요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 문안하여주시고 위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홍 회원은 지난 연말 하와이 자택에서 집안 일 하다 넘어져 발목을 심하게 다치셔서 다른 한쪽 다리로 근근히 움직여 왔는데 며칠전 여기로 올 무렵 다른 쪽 다리가 피부 밑에 virus로 굵는 증세가 보여 응급치료를 받아오다 지금은 병원 인근 요양원에서 회복중입니다.



5월 29일 (목)에 김창화 (미대65)동문의 Metropolitan Museum guide 은퇴기념으로 동문 20여명이 함께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중만 전회장은 올해 80이된 친구들과 5월 16일부터 1주일간 Bahama Cruise를 다녀 왔습니다.



정해민 고문(법대 55)에게 한국 법대 총동창회로부터 입학 70주년 기념 및 9순에 대한 축수패가 보내져 왔습니다.



이영범 (공대71) 회원 부부는 친구들과 함께 1달 여정으로 대륙횡단을 하고 5월 30일에 돌아왔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 흥중만(공대64)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하신 **성 야고보(산티아고)**는 스페인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서쪽으로 선교를 떠나 현재의 스페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헤롯왕에 의해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유해는 후에 스페인으로 옮겨졌고, 유해가 안치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는 대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예루살렘과 함께 유럽 3대 순례지로 손꼽히며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중 가장 잘 알려진 코스는 프랑스 생장피에 드포르에서 출발하여 나폴레옹 루트를 따라 피레네 산맥을 넘는 **780km의 프랑스 길(Camino Frances)**입니다. 저희 Golden Club의 이강홍, 조상근, 윤상영 회원님께서 수년 전 각기 다른 시기에 한 달 여에 걸쳐 이 길을 완주하며, 굳건한 의지와 인내심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80대에 접어들면서

올해 80대에 접어든 저와 두 명의 오랜 등산 친구가, 60대 중반의 경험 많은 은퇴 의사 친구를 앞세워, 네 명이 순례길의 1/3 구간인 268km를 11일 동안 걸기로 했습니다.

예전같이 무거운 배낭을 매고 등산은 하지 못하지만 나이에 걸 맞는 산행 패턴을 찾아보고 싶었던 저희의 이번 순례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뜻깊은 여정이 되었습니다.

순례길은 신앙적인 이유로 찾는 종교적 순례자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이들, 개인적인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 장거리 트레킹을 즐기는 스포츠형 참가자,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는 이들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저희는 함께 걸으며 "Buen Camino(부엔 까미노)!"라는 격려의 말을 주고받으며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자전거, 모페드, 모터사이클을 이용하는 순례자들도 많이 보였고, 여러 명 그룹이 아닌 혼자 걷는 분들도 자주 만났는데, 그 중에는 홀로 걷는 한국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짐은 가볍게, 마음은 풍요롭게

처음 순례길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짐을 줄여 배낭 무게를 12파운드(약 5.4kg) 이하로 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막상 걷기 시작하면서 입은 옷에 더해 양말, 팬츠, 셔츠, 바지, 가벼운 잠바 하나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우체국에 들러 주말에도 문을 여는 산티아고 우체국으로 부쳤습니다. 덕분에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순례길을 걸을 수 있었고, 또 많이 걸으면 발에 물집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아침저녁으로 풋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열심히 했더니 큰 불편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순례길의 리듬: 걷고, 먹고, 쉬고

하루 평균 25km 정도를 걸었습니다. 아침 7시경 숙소인 알베르



(성 야고보의 상징)



(산티아고 대성당)

게(Albergue)를 출발하여 한두 시간(4~8km) 걷다가 시골길 카페에 들러 커피, 주스, 사과, 빵 등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다시 서너 시간(12~16km)을 걸은 후 식당에서 푸짐한 점심 식사를 하고, 한 시간 정도 더 걸어 예약 또는 예정했던 알베르게에 도착하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가 되지요. 잡자리를 정하고 샤워를 한 후 휴식을 취하며 피로를 풀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품질로 사랑받는 스페인 와인의 자존심'이라는 리오하(Rioja) 레드 와인이나 '가볍고 청량한 맛'으로 스페인 요리와 잘 어울리는 에스트렐라 갈리시아(Estrella Galicia) 맥주를 곁들여 스페인 음식을 즐겼습니다. 순례길 위에서 맛보는 스페인 음식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즐거움이자, 함께 걷는 친구들과의 교류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상징과 맛의 향연

전설에 따르면 성 야고보의 유해를 실은 배가 스페인 북서 해안에 도착했을 때 조개껍질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개껍질은 성 야고보의 상징이 되었으며, 과거 순례자들은 산티아고에서 조개껍질을 가져와 귀향길에 자신의 순례를 증명하는 표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이 되어 순례길을 걷는 동안 배낭 등에 조개껍질을 달고 다니며 순례자임을 나타내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조금 큰 마을을 지나게 되면 즉석에서 삶아주는 문어 요리(Pulpo a la Gallega), 얇게 썰어낸 5J 하몽(도토리 사료로 자연 방목한 이베리코 돼지의 넓적다리), 그리고 신선한 스칼럽 요리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순례길은 단순히 걷는 길 뿐만 아니라 오감을 만족시키는 미식의 여정으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템플 기사단의 흔적과 역사의 숨결

또한, 폰페라다 지역에서는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템플 기사단의 성(Castle of the Templars)**을 지나게 됩니다.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의 배경이 된 12세기 템플 기사단의 요새였음을 알게 되었고, 로버트 랭던이 다양한 상징과 암호를 해독하며 역사적 음모를 파헤치는 긴장감 넘치던 모험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순례길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온 길로서,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단순함 속에서 찾은 평화

바쁘고 번잡한 TV, 신문, 컴퓨터 등과 거리를 두고 먹고, 자고, 걷고, 쉬는 단순한 생활을 열흘 이상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목적이 산티아고에 내일 아침이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도 7시에 출발하여, 10시에 순례자 사무소(Pilgrim's Reception Office)에서 콤포스텔라(Compostela, 공식 인증서)를 발급받고, 12시에 순례자들을 위한 대성당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마드리드로 이동하여 리오하 와인과 스페인 고급 요리를 즐기며 귀국 전야를 자축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하는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싶은 분들에게 산티아고 순례길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순례자를 위한 미사)



(순례길 저녁식사)



무작정 베트남 여행

■ 조달훈과 조승자(사대66)



Hanoi 박물관이 된 형무소

지난 해 셋달, 통증이 반년이상 간다는 어께 회전근개수술을 예약한 후 였어요. 베트남 다낭에 가서 한 달을 살아보면 어떨겠느냐는 오빠의 제 안때문에 , 약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장소를 변경. 인구 천만의 수도 하 노이로 정하고 왕복 비행기편과 큰 아파트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인 천공항에 가서 보딩패스를 받다가 큰문제가 발생:: 여섯 사람이 한달 살 준비물들을 넣은 가방 일곱개의 반 쪽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안으 로 들어간 후 갑자기, 진짜 갑자기, 미국 여권 소지자 두 사람은 비자가 없어 안된다는 겁니다. 위기. 마침 푹푹한 조카에게 연락했더니 ‘돈이 좀 들기는 하겠지만, 일 인당 480달러, 기다리십시오.’ 몇 분후 바로 해결 ‘스마트폰에 비자가 도착.’



하롱베이

이 여행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더니 예상과 다른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령 서울 같으면 시내에서 전철타고 가 불만한 구경거리가 아주아 주 많은 데, 하노이는 아니었습니다. 가 불만하다 싶은 곳들은 열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았습니다. 몇 군데 예를 들면, 호치민 묘소 Ho Chi Minh's Mausoleum, 박물관으로 변한 식민시대의 감옥, 남대문시장보다 넓은 야시장, ... 아주 중요한 것:: 하노이 시내의 인도는 모두 오토바이들이 쉽게 들어가 세워놓을 수 있게 설계되어, 보행자에게 매우 불편하고 따라서 행인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택시는 그랩 GRAB으로 부르기 쉽고 저렴합니다.



닌빈 Bai Dinh Pagoda

하노이에서 일일관광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두 곳을 꼽으라면 하 롱베이 Ha Long Bay와 닌빈 Ninh Bin이 있습니다. 일만삼천개 정도 의 섬들로 이루어진 하롱베이는 잘 알려진 관광지이고 이 곳 구경을 잘 하려면 하이퐁 Haiphong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닌빈에는 동 남야 제일의 넓이를 자랑하는 절 Bái Đính Pagoda 이 있고, 이 지역은 카르스트 지형 Karst地形 이고 산들과 비가 많이 와서 물놀이 장소와 기암괴석이 많습니다.

우리는 날씨 걱정을 해본 적 없이 하노이를 선택해서 갔는 데, 큰 실수 였습니다. 때가 마침 우기 雨期 여서, 우리가 머문 열흘동안 하루, 아니 단 한시간도 ‘아 공기좋다.’고 느끼지 못했고 할 수 없이 중부의 다낭 Da Nang 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낭은 베트남의 딱 중간으로서 북위 17 도이고 프랑스가 이 곳에 ‘동남아 최고의 휴양지 Ba Na Hills’ 를 조성 했습니다. 다낭의 북서쪽 50마일을 가면 인구 백사십 만의 후에 Hue 가 있는 데, 후에는 베트남 마지막 왕국 응우옌 왕조 Nguyn dynasty 의 넓 은 궁 393 acres 이 있습니다.

바나힐은 해발 1,450 미터 이상의 산위에 있고 보통 사핑물 열개쯤 모아 놓은 것 만큼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케이블카 시설이 네 군데 있고, 바나힐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케이블카는 따로 있습니다. 바나힐을 조 성할 때, 프랑스가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학대해서, 프랑스가 물 러나자 사람들이 올라가 부시고 부셔 폐허가 되었었다 합니다. 여러 십 년이 지나 개발업자가 현재의 모습으로 바꾸고 케이블카 시설도 만들 어 유명하게 되었고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크기를 짐작할 수 없고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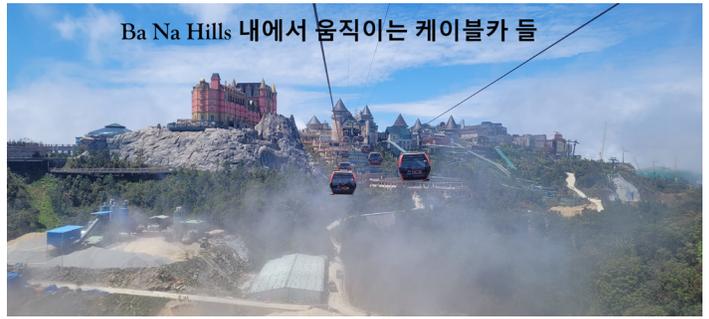
객들이 와글와글하는 부페식당이 있는데, 케일블카 표를 살 때 같이 사면 한 30프로 싼 것 같았고, 음식 맛과 가짓 수가 최고입니다.

다낭의 모래사장은 끝이 안 보이게 길고 동쪽을 향해 있으며 해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층호텔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해변에서 동북쪽으로 보면, 바다 건너 삼 길로 지점에 하얀 부처상이 보이는 데, 택시를 타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입장료도 없지만 제가 평생 보았던 절들 중에서 꽃이 제일 많았어요. 아마 사시사철 그렇게 꽃밭일 거라고 믿어요. 거기 서있는 육십여 미터의 흰 부처상은 쉽게 Lady Buddah 라고 부릅니다.

다낭비치 남쪽 사마일 정도를 가면, Marble Mountains, 또는 오행산이라 하는 자그마한 산들이 평야에 뿔뿔 올라와 있고 높이가 백미터도 안되어 보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아니면 올라가기 어려운 산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구경거리가 하도 많아 여기저기 해마다가 반의 반도 못보고 내려오게 되어 나머지는 포기했습니다.

베트남의 특이점 몇가지: 영문 문자를 쓰지만 영어는 모르고 오히려 한국말을 좀 합니다. 프랑스 미국 중국을 모두 미워하지만, 불란서 신부가 만들어 준 문자를 쓰고, 미국돈을 좋아하고, 그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한자기본의 말들이 많이 섞여있습니다. 돈 단위가 큼. 1 USD ~ 26,000 VND. 불교유적은 아주 많지만 인구의 86%가 무종교임. 베트남에는 카르스트 지형의 산과 섬이 많은 데다가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기암절벽과 호수 그리고 동굴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 있고 발견되지 않은 동굴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 베트남의 산들은 우리나라 산들과 달리 전혀 걸어 올라가 볼 엄두가 나지 않게 가파른 돌산이거나, 나무들이 가득찬 숲이었습니 다. 남부에는 넓고 비옥한 땅 메콩 삼각지대와 사막, 고원지대 등 각기 다른 특성의 땅들이 있고, 전체적인 숫자는 적어서 십 퍼센트 미만이지만,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를 쓰는 소수민족 쉰네 54부족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말도 전혀 안 통하는 나라에 한 달 다녀와서 돌아켜 보니 무두 째째하네요.



Ba Na Hills 내에서 움직이는 케이블카 들



Ba Na Hills 장식품



바나힐스 Golden Bridge



Ninh Binh 뱃놀이



Marble Mntn 오행산

회원 명단 (110명 / 2025-5-25)

강교숙	김영덕	손갑수	윤재옥	임도혁	한민우
강에드	김영만	손경택	윤종숙	임호준	한영수
강영선	김익성	손대홍/	윤현남	전문준	한용오
계동휘	김우영	남종현/	이강홍	정도현	한태진/
고애자	김정필	손옥화	이민제	정수일	한용희
곽선섭	김창수	송근숙	이상무	조달훈/	허용웅
권문웅	김충정	송웅길/	이상원	조승자	허유선
권정덕/	김치갑	송현자	이승준	정해민	홍정표
홍선경	김태일	송해순	이 준	조상근	홍종만/
권영대	김한중	신두식	이대연	주상선	홍예경
권태전	김현중	신진식	이대영	주재양	
금영천	노승만	신응남	이영범	진봉일	
김광수	노용면	신응문	이용대	천병수/	
김광현	민준기	오순문	이위곤	천중화	
김동건	박기환	오용호	이전구	최병우	
김문경	박상원	오인석	이종대	최순희	
김문언	박준구	우규환	이종석	최진영	
김병순	박희병	유무영	이준행	최한용	
김상만	배상규	윤선구	이행순	최학주	
김승호	성기로	윤상영	이홍빈		

2025년 연회비 납부 명단 63명 / \$6300 / 2025-5-25

강에드	김정필	신진식	이홍빈	한민우
계동휘	김충정	오순문	이행순	한용오
곽선섭	김한중	오용호	임도혁	한태진
권문웅	김현중	우규환	임호순	안용희
권정덕	민준기	윤상영	전문준	홍정표
홍선경	박기환	윤선구	정수일	홍종만
금영천	박준구	이대영	정해민	홍예경
김광현	박희병	이상무	조상근	
김문언	배상규	이승준	주상선	
김병순	성기로	이영범	천병수	
김상만	손갑수	이위곤	천중화	
김승호	손경택	이전구	최병우	
김영만	송근숙	이종대	최순희	
김익성	신두식	이종석	최한용	

2025년 후원금 기부 명단 (24명 / \$11,700 2025-5-25)

강에드 300	배상규 200	이전구1000	최한용 500
계동휘 300	성기로 500	이종대200	한태진500
권정덕 500	손경택 1500	이행순 200	홍종만 1000
금영천 300	신진식 300	임호순 300	
김상만 100	오용호 300	전문준 500	
김옥수 200	이영범300	정해민 2000	
김한중300	이위곤 100	최준희 300	

2025년 입회비 납부 명단

전문준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5-5-25)

3월	13(목)	하이킹 (취소)
	22(토)	신년교례회 (82명 참가)
4월	10(목)	하이킹 (6명참가)
	24(목)	골프대회 - Sunset Valley (28명참가)
5월	22(목)	뉴욕동창회골프대회 - Pelham
	29(목)	Metropolitan Museum 방문
6월	12(목)	Family Picnic (Alpine Pavillion)
	26(목)	골프대회 - Walkil Golf Club
7월	17(목)	골프대회
	31(목)	Longwood Garden 방문
8월	14(목)	골프대회
	9월	11(목)
10월	9(목)	뉴욕동창회 골프대회
	16(목)	하이킹
	30(목)	골프대회
	12월	6(토)
	7-13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1일(토)



6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문경 (약대61) 한민우 (의대69)
- 김우영 (상대60)
- 손갑수 (약대59)
- 송현자 (송웅길)
- 신응남 (농대70)
- 이민제 (공대70)
- 최병우 (공대67)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